

한국근대문학에 나타난 한일문화접변에 대한 연구¹⁾ - 부산을 배경으로 한 일제시대 소설을 중심으로 -

김정하²⁾

A Research for the Acculturation of Korean Culture and Japanese Culture in Korean Modern Literature

Jung Ha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for the acculturation in Korean modern literature, especially in modern novels which has urban features of Busan as background of novel.

In the years of Korean modern times, the modern culture of Korean society was greatly affected by that of Japan. However, that is to say, acculturation was occurred between two countries. The western culture was imported via Japan as mixed forms and contents with the tradition of Japan. Therefore the feature was transmitted to Korean society with the intentional drive of the policies of Japan empire government. Those 'culture of colonization' made similar social culture and socio-milieu in Busan area. By those cultural rulings and effections, main features of Korean modern culture was formed in Busan, and became the part of Koreans' daily-life culture which continue to nowadays. So, we can call the feature of the acculturated Korean modern culture, in another words, 'hybridity'.

At the result, this is one of the efforts to find the route and progress of the regional history of Busan, at the same time, to clarify the faetures of Korean modernization and real shapes of Korean modern history in Korean modern literature.

Key words : modernization, modern novel, acculturation, hybridity, Busan culture

1) 이 논문은 한국해양대학교 2004학년도 연구년 지원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2)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1. 서론

근래 근대기 한국문학의 정신적 추이와 문화적 흐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문학의 성과를 반추하려는 노력이 왕성하다. 과연, 작금의 탈식민주의 문학사조나 글로벌시대의 문화 통합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와 행보를 나란히 하는 논의나 “문학이 시대의 추이를 전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문학이란 사회적, 역사적 사실성을 담보해 시대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초월적 차원에서의 방향제시를 위해 사실을 뒤집고 배반하며 비판하고 풍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 당대 사회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 평가나 가치판단을 건져 올릴 경우에는 문학이 지닌 특유의 사고방식 안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학에서 시대를 구명하기 위한 자료만을 찾을 게 아니라 근대성의 비판이나 중심성 해체의 분석 및 해석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³⁾

최근의 문화론적 문학론을 살펴보면 행동이나 의식주에 관련된 물건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된다.⁴⁾ 예컨대 소설에 묘사된 “여학생의 패션”을 중심으로 유행의 대중적 감수성을 살피거나, 의복, 음식, 화장품 등 대도시소비문화를 점검하거나,⁵⁾ 근대풍 요리의 변화에 주목하거나⁶⁾, 백화점을 둘러싼 도시인의 심리를 분석한다.⁷⁾

본고 역시 이에 행보를 맞추되, 단순히 평면적이고 외면적인 풍속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한일근대문화 교류의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의식이 투사된 공간’⁸⁾으로서의 소설적 배경으로서의 근대도시, 그 중에서도 개항지이자 근대식민도시인 부산의 예를 들고자 한다. 다행히도 부산을 배경으로 씌어진 소설들을 모아놓은 선행연구가 있어,⁹⁾ 그 작품들을 본고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분석코자 한다.

2. 근대문화의 소설적 형상화

2.1 여행의 동선(動線)과 이국취향

3) 이경(1999), 한국근대소설의 근대성 수용양식, 태학사, P. 23.

4) 곤와지로의 “考現學”은 “Modernology”의 번역어가 아니라 1927년 <현대물품 전람회>를 위해 만든 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今和次郎(1971), 考現學, 株式會社ドメス出版, PP. 24-25.)

5) 김성환(2003), “1930년대 대중소설과 소비문화의 관계양상 연구”, 한국문학과 풍속1, 국학자료원.

6) 신범순(2003), “원초적 시장과 레스토랑의 시화-야생의 식사를 향하여”, 한국문학과 풍속1, 국학자료원.

7) 이경훈(2001), “미쓰코시, 근대의 쇼윈도우-문학과 풍속1”, 한국근대문학과 일본문학, 국학자료원.

8) 신현숙(1995), “연극공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문화와 기호, 문학과 지성사. 참조 바람.

9) 조갑상(2002), 소설로 읽는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1.1 교통도시의 역할

한국에서의 근대식민도시 건설은 부산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었다. 1914년 부제(府制) 실시 당시부터 부산은 이전에 존재하던 전통도시와는 외형과 내용 면에서 전혀 다른 도시였다.¹⁰⁾ 경성에 버금가도록 계획된 각종 시설이나 건축물은 일본과 매우 흡사했고 개중에는 일본보다 더 우수한 건축물이 지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부산은 장차 제국 말기에 천황의 위업을 기리는 증거로 제시될 특권화된 공간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부산은 <血의 淚(하편)>에 그려진 것처럼 “화륜선(연락선)과 경부선철도가 닿는” 교통도시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경부철도주식회사는 1901년 8월 기공한 경부선 267마일을 1904년에 완공했고 이어 산요철도회사는 한일철도의 연결을 위해 잇키마루와 쓰시마마루라는 배 두 척을 투입해 부관항로를 열었다.¹¹⁾

부산 절영도 밖에 하늘 밑까지 툭 터진 듯한 망망 대해에 시커먼 연기를 무럭 무럭 일으키며 부산항을 향하고 살같이 들어드는 것은 화륜선이다. 오륙도 절영도 두 틈으로 두 좁은 어구로 들어오는데 반속력 배질을 하며 화통에는 소리가 하늘 당나귀가 내려와 우는지, 웅장한 그 소리 한 마디에 부산 초량이 들썩들썩한다.

교통수단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집단을 묶고 생활을 획일화하며 지역을 이어주는 근대문화 유입의 통로였다.¹²⁾ 특히 부설과정에 권력이 개입한 기차는 그 노선의 통과여부만으로도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간의 격차를 현격히 벌여놓곤 했다.

역동적으로 변한 부산은 전통문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와 해체를 실감케 하는 공간이었다. <鬼의 聲>에서 보듯 “길은 천리나 되나 내왕 인편은 조석으로 있는” 도피자들의 일시적 경유지고, 기차나 배가 멎고 떠나는 종착점이자 시발점이었다. 이를 <도항노동자>에서는 “처음 보는 도회지에도 현기증이 나지만 껌은 바닷물을 밧그러져 오는 기선의 뽐뽐하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내진다”고 그리고 있다.

애초부터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교통수단이 전통사회나 가족구조를 해체하는 도구로 여겨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차차 근대화가 진행되고 소설이 이에 따른 사회변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변화에 속도를 붙여넣는 교통수단의 기능도 드러났다. 소설 속 여행객은 유학생 뿐이 아니라 <부산>에서처럼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노동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였다.¹³⁾

10) 졸고 (2005), “근대식민도시 부산의 성격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9집.

11) 釜山甲寅會 (1916), 日鮮通交史(近代記), P.236.

12) 김성환 (2003), “1930년대 대중소설과 소비문화의 관계양상 연구”, 한국문학과 풍속 1, 국학자료원, P.134.

기차나 연락선을 이용하는 여행객, 특히 한국인은 일제당국의 검문 대상이었다. 그래서 1920년부터는 지금의 중앙동 부두와 영선동, 좌동에 수상경찰서가 설치되어 여행객을 검문하고 도항증을 발급했다. 지배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명분으로 한 검문과정에서의 제도적 억압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도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이동구의 <도항노동자>에 그려진 분위기도 역시 그러하다.

순사 압해 셋슬때는 얼굴이 더워지고 귀가 멍-하여진다. 감히 순사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외운 인사의 말을 입속에서 중얼거리며 허리를 꾸부렸다.

이남원의 <부산>에서도 “수상경찰서의 도장이 찍힌 인쇄물”, 즉 도항증을 얻으려다 사기를 당한 후 밀항선을 타지만 경찰의 추격을 받아 좌절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2.1.2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의식

이른바 미자각 상태인 전근대적 단계에서와는 달리 근대적 존재는 시각적으로 확인한 대상을 소유하려 들고 이를 이행하려 한다. 침탈과 지배는 그 과정이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이 근대소설의 언술의 방식과 체계를 형성했다.

<萬歲前>등 소설에서도 자신의 고국을 대상화한 시선은 식민통치자 내지 제도의 시행자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부산이라 하면 조선의 항구로는 첫손꼽을 데요, 조선의 중요한 첫문호라는 것은 소학교에 한달 만 다녀도 알 것이다. 그러니만큼 부산만 외봐도 조선을 알 만하다. 조선을 축사(縮寫)한 것, 조선을 상징한 것은 과연 부산이다. 외국의 유람객이 조선을 보고자거던 우선 부산에만 끌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면 그만일 것이다. 나는 이번에 비로소 부산의 거리를 들어가보고 새삼스럽게 놀랐고 조선의 현실을 본 듯 싶었다.

“보고자거든”, “들어가보고”, “본 듯 싶었다”가 모두 ‘보는 행위(watching)’의 이행과정이다. 소설적 언술에서는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본다’는 행위 자체가 ‘소유’를 전제하거나 결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남쪽도시’가 아니라 “조선”이나 “부산”이란 객관적 호칭이 사용되고 객관적 대상으로서 “조선의 중요한 첫문호”라거나 “축사(縮寫)”

13) 도일을 대기하거나 실패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부산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도일은 궁지에 몰린 이들의 도피적 희망이었다. 1923년 9월의 관동대지진 이후 도항이 제한되자 전국에서 모여든 실업자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4) 오윤호(2003), “염상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모방적 이성애’”, 한국소설 근대성의 시학, 예림기획, P.286, P.288.

내지 “상징”, “유람”의 매개로 대상화되어 있다. “축사(縮寫)”나 ‘상징’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방법이나 경위이고, “문호”(門戶)나 “유람”은 존재의 기능이나 의미로서 “조선의 현실”을 구성한다. “축사(縮寫)”란 부산이 존재하게 된 방법이나 경위가 의타적임을 드러내는 말이고, “상징”이란 부산이란 특정지역이 여타 한국의 다른 지역의 속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냄을 지칭하는 말이다.

〈萬歲前〉의 주인공의 내면의식에 얼비친 생활환경과 한국인들의 외모, 인간관계, 결혼제도 등은 모두가 비판과 냉소의 대상이다. 주인공 이인화는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애인을 찾느라 어슬렁거리며 조혼에 의해 맺어진 결혼제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태도는 작중인물의 신분이나 지위가 당대 사회의 현실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지배자의 시각을 답습하는 “부르주아적 이기주의”의 발로이거나 “피식민 주체의 눈이 아닌 식민지 지배자의 눈”이기 때문만¹⁴⁾ 아니다. 물론 1930년대 이상이나 박태원의 소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근대성에서만 찾은 결과 “근대문화에 함몰되어 당대를 자본주의적으로만 인식하고 제국주의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당대 소설의 작중인물이 현실로부터 소외된 처지에 놓이게 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萬歲前〉에서 한국에 대한 경멸은 그로부터 10여년 후에 발표된 〈부산〉에서의 부산에 대한 지독한 환멸로 이어진다.

기차가 떠나서 부산역이 차차 멀어져 갈때에 나는 지옥에나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 생긴다. 그렇다. 부산은 양심이 없는 마굴이며 씩어져가는 인간지옥이다.

이처럼 주인공들의 자아의식은 이중적인 동시에 모순적이었다. 이 모순적 태도 역시 지배자인 타자(일본)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비판하면서도 그로부터 자신을 정립할 근거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근대적 삶과 동일시를 경험하며 주체로 구성되기를 욕망”하던 주인공의 “자신의 주체성과는 다른 타자적 존재성을 경험”코자 하는 욕망이 빚어낸 태도다.

2.2 가족 해체와 사회문화의 변동

2.2.1 전통사회의 해체와 여행

근대기가 시작되면서 전통사회나 가족구조가 무너지고 혹은 집을 떠나 유랑하는 군상이 늘어나고 있음이 소설의 주된 소재로 다루어졌다. 정주민이던 한국인이 집을 떠나는 것이

15) 오윤호, op.cit., P.291., 이경 op.cit., P.171.

16) 이를 바슐라르는 “이미지의 통합체로서의 집”을 “세계 안의 우리들의 구석”,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 “정녕 하나의 우주”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1996), 공간의 시학, 민음사,

야말로 상징적 모습이다. ‘집’, 혹은 ‘머물 집이 있는 고향’은 단순한 ‘장소space’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의식이 투사되어 존재가치를 해명하는 ‘공간place’이다.¹⁶⁾ ‘집’, 혹은 그와 동질적 의미인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처럼 농촌마을을 다룬 김유정이나 현진건, 나도향의 작품에는 가족의 해체와 탈향의 모습이, 전영택의 〈화수분〉에서처럼 남의 집 행랑살이를 하던 가족이 그 생활마저 유지할 수 없어 정처 없이 유랑의 길에 나서야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와 함께 ‘여행’은 일상적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무정〉 이래 이른바 ‘여행소설’이라 부르게 된 작품들이 〈萬歲前〉을 비롯하여 속속 발표된다. 특히 〈萬歲前〉에서의 ‘여행’은 이국체험에 젖어 살던 주인공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모국을 여행하고 돌아가면서 느끼는 갖가지 상념과 겹치는 도정으로, 그것은 스토리 뿐 아니라 주제를 형성하는 의미구조상의 라이트모티프이다.

그런 상황에서 교통도시 부산은 일본 내(신바시-시모노세키) 급행열차의 증편 운행에 따른 관부연락선 운항시간 단축에 의해 일본과 한국 간의 왕래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에서도 교통상의 발전을 보여주는 도시였다.¹⁷⁾ 여행소설에 그려진 부산이나 현해탄 여행이 기존 논의에서처럼 국가간의 대립이나 식민화의 의식과 무의식의 상징으로 과잉 해석될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여로”이며 “문명의 이름으로 강요된 세계체제의 질서 속에서 진행되었음”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산은 일본과 한국의 접경지이고 일본인 관리의 감시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자국민의 초라함과 일본 문화의 범람이 동시에 보이는 공간이었다.

2.2.2 일탈과 욕망의 사회문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눈으로 본’ 대상을 ‘손으로 소유하는’ 근대의 방식을 거침없이 실행에 옮기자 차차 피식민국인들도 이를 흉내내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근대식민도시 부산은 혼돈과 착종의 공간이 되어 〈鬼의 聲〉에서처럼 처첩간의 갈등에 끼어들어 사람을 죽인 점순 내외가 은신하는 도시가 되었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물 쓰듯 하다가 결국 또 다른 자객의 손에 죽게 되는 타락상의 극한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다. 또 교통도시이자 여행도시답게 술과 요리를 파는¹⁹⁾ 일본식 술집이나 유곽이 많이²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식 유곽 ‘미도리마치[綠町]’가 건설된 곳이다.

그러나 문간에는 대개 여인숙이라는 패를 붙였다. 잠깐 보기에 이런 항구에

PP.113-120 참조.)

17) 釜山甲寅會, op.cit., P.237.

18) 차혜영(2004),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 ‘식민지시대 문학 장의 재발견’ 학술발표회 자료집, P.8.

19) 編者代表 南博(1987), 近代庶民生活誌(6卷), 株式會社 三一書房, PP.203-204.

20) 부산을 소개하는 관광안내책자에는 “一夜千金의 不夜城 로맨스”를 제공한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今井 晴夫(1939), 朝鮮之觀光, 朝鮮之觀光社, P.192.)

흔히 있는 그러한 종류의 영업을 하는 데인 것이 분명하다.

유곽의 설치는 신사, 군대와 더불어 일본이 건설하는 식민도시의 특징의 하나였다²¹⁾. 간단한 음식을 팔던 “카페”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지닌 젊은 여자, “여급”에 의해²²⁾ 유곽이 되어갔다. 부산에 들른 소설 속 주인공도 일탈적인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아내의 문상을 위해 여정에 나선 〈萬歲前〉의 주인공은 기왕에도 카페 여급과 유희를 즐기던 터인지라²³⁾ 부산에서도 자연스럽게 작부들과 희롱을 한다.

나는 몸이 녹으라고 술을 몇 잔이나 폭배를 하고 나서 계집애들에게도 권하였더니 별로 사양들도 아니하고 돌려가며 잔을 주고받았다. 이번에는 다른 계집애가 갈아 들어오는 술병을 들고 들어왔다. 이 계집애도 판을 차리고 화로 앞에 앉는다.

3. 한국근대소설과 근대식민도시의 문화

3.1 근대식민도시의 형성과 문화

3.1.1 근대식민도시의 형성

근대식민도시의 변화는 무엇보다 먼저 도로개설에 의해 일어났다. 경성에서는 17년간의 공사 끝에 도로가 개수됨에²⁴⁾ 따라 1930년대 중반에는 지가가 폭등하고 토지투기가 벌어졌음이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등에 그려졌다.

1920년대 부산 시가지가 묘사된 〈萬歲前〉의 한 대목을 보자.

부두를 뒤에 두고 서쪽으로 곱들어서 전차길 난대로만 큰 길을 걸어갔으나 좌우편에 모두 2층집이 죽 늘어섰을 뿐이요, 조선 집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21) 간접자료로, 1906년 만주 봉천의 일본인거류민 지출예산 4천 9백 4영 중 매독검사비[特種婦人衛生費]가 1천 6백 50영에 달했고, 수입금 중 예기, 작부의 부과금이 총금액 6천영 중 3천영에 달했다.

22) 1930년대 ‘에로 그로’ 열기는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소래섭(2005), 에로 그로 넘센스, 살림, P.48.), 여기 그려진 1920년대 술집은 그 초기형태다. 조선에서는 1911년에 ‘타이거’란 카페가 처음 생긴 이래 1920년대 들어와 활기를 띠어 1930년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는다. 결국 일제는 1934년 9월에 〈카페영업취체내규표준〉이라는 발표하여 영업의 전반적 사항을 규제했고, 이후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전쟁에 따라 영업이 쇠퇴했다.(소래섭, ibid., PP.40-48.)

23) 양문규(2004), 한국근대소설과 현실인식의 역사, 소명출판, P.115.

24) 千田禾念 編(2004), 東アジアの都市形態と文明史(國際シンポジウム第21集),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P.320.

조선식 가옥이 눈에 띄지 않는 까닭은 주인공이 한국인 동네와 반대편으로 가서 조선인 집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남부민정, 곡정, 대신정 등 중심부에 일본인이 거주하고 대다수 한국인은 초량정, 좌천정, 범일정 등 교외에 모여 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가지가 확대되기 전까지 그 지역들은 부산이 아니었다. 주인공은 부산을 보고 한국이 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예전에 없던 도시가 새로 생긴 사실을 두고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성의 ‘혼마치(本町)²⁵⁾’와 같은 상권이나 도시문화에 퍼지기 시작한 소비문화도 예전에 존재하던 문화의 변화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향유하는 내용이나 사람, 방법 모든 면에서 전혀 새로운 문화였다. <痴叔>에서 보듯 도시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연극, 영화, 만담[落語 등과 신문, 잡지, 유성기, 영화, 연극이 오락거리가 되었고²⁶⁾, 축제와 산보, 드라이브, 해수욕, 등산 등 ‘일상의 여가문화’도 유행하기 시작했으며²⁷⁾, 석유와 전차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호식품인 ‘차’와 ‘다방’의 인기가 대단하여²⁸⁾ “다방에 앉아 컵을 푹으로 쿡찜너 먹으면 갑자기 자기 자신이 몹시 올라가는 것같은 황홀감을” 느끼는 소감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졌다.²⁹⁾ 이런 도시문화는 1930년대 <날개>나 <川邊風景>등에 형상화되면서 근대소설의 주요소재가 되었다.

개항 초기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던 부산도 <秋月色>에서처럼 “범죄가 들끓고 왜색이 넘치는” 곳, 혹은 <鬼의 聲>에서처럼 초량을 중심으로 변화가가 형성되어 “오십 원의 거금을 하루에 쓸 정도”의 소비가 벌어지는 곳으로 그려졌다. 차차 술집이나 유곽이 들어서면서 향락과 퇴폐풍조가 자리를 잡아 <부산>에서 보듯 “가방수선공”이나 “옛장수”, “음식집”, “국수집”, “여인숙”가 외지인의 주머니를 노리는 살벌한 공간으로 그려졌다.³⁰⁾

3.1.2 근대식민도시의 문화

일제에 의한 조선반도에의 문명 이입은 한국인들을 타자의존형 ‘근대적 인간형’으로 만들었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타자에 의해 욕망되는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어 얼마나 서구와 같아지는가, 일본과 같아지는가에 경쟁적으로 관심을 두었다. “東京에는 긴 부라, 京城에는 혼부라”란 말이 유행할 만큼 유행의 전달속도는 빨랐다.³¹⁾ 도시의 변화함은 의식의 심층에 영향을 미쳐 근대화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면 누구나 근대인

26) 1926년 김우진과 윤심덕의 정사 사건 이후 <사의 찬미>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1928년 전기녹음 방식이 도입되면서 음반은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로 부상했다.(소래섭, op.cit., P.26.)

27) 배주영, (2003), “도시적 감수성과 연애소설에 관한 시론”,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사, P.533.

28) 삼천리 1936년 12월호.

29) 손유경(2003), “1930년대 다방과 文士의 자의식”, 한국문학과 풍속1, 국학자료원, PP.99-100.

30) 조갑상, op.cit., P.120.

31) 신명직(2003),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P.136.

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이 만연했다.³²⁾ 현진건의 〈貧妻〉에서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물품 구입 뿐 아니라 욕망의 자극에 따라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소비가 창출됐다. 소비방식은 연애방식까지를 바꿔³³⁾ 애인의 조건은 물건처럼 외모를 으뜸으로 꼽았다.³⁴⁾ 영화, 비라, 포스터, 대중미술이 난무하는 도시변화가에 룸펜과 실직노동자, 유한계층, 여급이 뒤섞여 흥청거렸다.³⁵⁾

교통도시 부산을 다룬 소설 〈鬼의聲〉이나 〈萬歲前〉, 〈부산〉에는 옛장수, 음식점 주인, 밀항 사기꾼 등 인텔리가 아닌 하층민이 우글거리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들은 근대적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논리를 먼저 체득하여 그 모순을 드러내 보인 한국인들로, 근대의 억압과 그로 인한 고통이라는 당대적 모순을 그려내기에 적합한 '문제적인 개인'들이었다.

3.2 자아의식의 근대 지향

3.2.1 차별의 도시문화

근대에 들어 도시를 중심으로 전근대적 비문명과 의 차이를 원리삼아 '발전'을 추구하는 서구도시가 재현되면서, 서구식 문명에 대한 동경이 촉발, 충족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이후 18세기 영국도시가 재현된 도쿄가 '특권도시'로, 요코하마나 코베 등 항만도시가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코베에는 가스등과 유보도와 도로, 공원이 설치됐다. 유사한 도시화는 식민도시에서도 추진되었다. 일제의 내선별학(內鮮別學) 정책에서 보듯 식민통치 자체는 '차별화'가 주요원리였다.³⁶⁾

식민도시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지역이 나뉘고 그에 따른 차별이 가시화되었다. 식민통치 담당자인³⁷⁾ 일본인들의 거주공간이 도시계획에 의해 만든 '발전된 공간'으로 부각된³⁸⁾ 반면 한국인들의 거주지는 '빈민지'로 여겨졌다. 차차 거주지구 뿐 아니라 1914년의 '시장규칙'에 의해 재래식 장터시장과 일본인이 운영하는 도소매시장이 구분됐다. 일본인 상가가 "불야성의 별천지"로 사람을 유혹하는 데 비해³⁹⁾ '시장규칙'에 의해 밀려난 한국인 소매상인들은 '불법거래자'로 낙인찍혀 번두리를 유랑했다.⁴⁰⁾

32)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2004), 박람회-근대의 시선, 논형, P.161.

33) 배주영, ibid., P.537.

34) 남자에 있어서도 외모에 대한 묘사가 감각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외모를 인격이나 추상적 관념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쇼윈도적 시선이 확산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인텔리 結婚適齡期處女の理想男", 여성 1938년 3월호.)

35) 成田龍一, 〈近代日本の軌跡 - 都市と民衆〉, 吉川弘文館, 1993年, PP. 39.

36) 竹國友康(1999), ある日韓歴史の旅, 朝日選書, P.96.

37) 高崎宗司(1993), 在朝日本人 清日戦争(岩波講座:近代日本 植民地3), 岩波書店 참조.

38) 1910년대 ~ 1920년대를 거치면서 경성의 도심부 공간의 변화에는 전통적인 요소의 식민지적 전용, 식민 권력의 공간 점령, 전근대적 상징질서의 붕괴 등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염복규(2005),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P.17.)

39) 소래섭, op.cit., P. 25.

헌병과 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강요는 근대성의 보편적 가치인 진보나 문명, 법 등을 통해⁴¹⁾ 생활과 관련된 일본어의 보급, 식림(植林), 농산(農産)의 개량, 부업의 장려, 법령의 보급, 심지어 위생에까지 미쳤다.⁴²⁾ <萬歲前>의 주인공이 “누구의 이층이요 누구를 위한 위생이냐?”고 부르짖듯 식민도시란 결국 <濁流>에서처럼 제도라는 폭력에 의해 소외감을 맛봐야 하는 불평등 공간이었다.

그에 따라 식민통치 초기의 한국인들은 근대문화의 우월성에 짓눌린 채 자율적 인간형을 갖추지 못한 채 피동적으로 이를 수용해야만 했다.⁴³⁾ 이를 <레디메이드인생>은 “꼬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던 인텔리는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 무기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 되었다.”고 갈파했다.⁴⁴⁾

3.2.2 혼종문화의 형성

차차 식민지배가 깊어질수록 근대문화는 한국인의 생활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바꾸어놓기에 이르렀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화(assimilation)⁴⁵⁾ 여부는 일제시대의 문화혼종과 큰 상관이 없다고 본다. 정책적 ‘국민문화’나 “소나무와 사쿠라[櫻], 다다미[畳], 쇼우지[障子:미닫이]”⁴⁶⁾ 따위는 극히 선별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소나무와 사쿠라를 제외하곤 일본문화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행정적 차원에서 건설된 신사는 해방 후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의 정책적 문화이식에는 저항적이었던 한국인들이 서구문화를 표방한 근대문화에는 무방비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⁴⁷⁾ 시간이 감에 따라 차근대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뚜렷해졌고 그에 따라 문화의 혼종도 가속화됐다. 1930년대에 이르러 문화수용 정도가 심화되자 “한복 입고 부츠 신은 여인, 한복 입고 게다 신은 여인, 일본 옷을 입고 태극선을 든 청년, 갓 쓰고 뱃놀이 하는 노인과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나오는 단발 칠피 구두 신은 여인”이 전국에 넘쳐났다.⁴⁸⁾

<부산>에는 “일본천으로 조선옷을 해입은 여자”가 등장하고 “조선사람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일본말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식민지 후기에 이르러 일본인 거주지역에도 조선인 거주가 확산되는 혼재현상을 보여⁴⁹⁾ 일본인이면서 김치를 즐겨먹거나 방 하나쯤은

40) 노형석(2005), 한국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P.105.

41) 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2002),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P. 433.

42) 井口和起(1976), 朝鮮併合(岩波講座 日本歴史 17(近代 4)), 岩波書店, P.211. 이는 대만에서 민정장관이 수비군의 간섭을 배제한 것이나 미국이 필리핀에서 민주주의 질서를 가르친 것과 차이가 있다.

43) 이경, op.cit., P. 69.

44) 채만식(1989), 채만식문학전집 7, 창작과 비평사, PP. 52-53.

45) “소수민족이 특수한 기층문화 그룹에 접촉하여 취하는 문화적 영향”(J.H. 스텔워드, 米山俊直, 石田子 驛(1979), 文化變化の理論-多系進化の方法論, 弘文堂, P. 49.)

46) 橋谷弘, 植民地都市(成田龍一, op.cit.,), P. 231.

47) 윤해동(2000),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P. 238.

48) 김주리(2005), 모던 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살림, P.62.

온돌방으로 꾸미는 예도 많았다. 그런 양상은 적어도 1941년경에 이르러 일제가 “황민화, 내선융화, 내선일치, 아시아주의” 등을 강제하기⁵⁰⁾ 전까지 줄곧 계속됐다.

특히 부산은 한일간의 문화접촉에 의해 형성된 독립적 문화였으므로⁵¹⁾ 부산은 “3元的體制를 이룬 接點의 都市”였다.⁵²⁾

함부로 세운 허술한 2층집이 좌우편에 5-6채씩 늘어섰는 것이 조선사람이 집 같지는 않으나 이 문 저 문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조선사람이다. - - - (중략)
- - - 그러나 조선사람의 집 같은 것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간혹 납작한 조선가옥이 눈에 띄우나 가까이 가서 보면 화방을 열고 일본식 창살 틀을 박지 않은 것이 없다.

일제는 부산에 서양건축기술을 익힌⁵³⁾ 일본인 건축기술자들을 보내 “倭色 짙은 擬洋風 建築物”⁵⁴⁾을 짓게 했다. 그 결과 서양에서 18세기에 유행하던 제국주의풍 건물로⁵⁵⁾ “영국 풍 르네상스식 화강석 건물”⁵⁶⁾이었다는 부산세관 등이 지어졌다. 주택 건축에도 벽돌이 사용되고 다다미가 깔리고 취사나 온열에 전통도구인 ‘로(爐)’ 나 ‘이로리(圍爐裏)’ 외에 ‘삐치카’ 와 ‘유담뽕’ 를 갖춘⁵⁷⁾ ‘이층집’ 이 인기를 끌었다. 관리나 지식인들, 인텔리여성들이 ‘주택 개량’ 을 주창하는 가운데 부유층, 권력층의 전유물이던 “문화주택”이 차차 식민지 사정과 형편에 맞게 변형된 화.양.한절층형(和洋韓折衷型)⁵⁸⁾으로 당대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갔다.

이남원의 <부산>에 그려진 “아래층은 조선식 방들이었는데 위층은 일본식방”인 주택은 그보다 앞서 발표된 <萬歲前>에 등장한 모습과 같다.

그래서 한 집 줄고 두 집 줄며 열 집 줄고 백 집 주는 동안에 쓰러져가는 집은 헐리어 어느 틈에 새 집이 되고 단층 집은 2층으로 변하여 온돌이 다다미되고 석유불이 전등된다.

49) 千田禾念 編, op.cit., P. 325.

50) 矢內原忠雄(1941), 植民及植民政策, 有斐閣, PP. 303-306.

51) 한국에서 살다 종전과 함께 “引揚者”로 일본에 귀환한 在朝日本人들이 한국문화를 일부 지녔다 하여 日本 속의 日本人”이라 불리며 차별받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 상당수가 온돌과 김치, 민요” 아리랑” 등을 생활 속에 익히고 살았다고 증언한다.

52) 김정동, op.cit., P. 48.

53) 김동욱, op.cit., P. 298.

54) 윤일주교수 논문편찬회 편(1987), 한국근대건축사연구,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창회, P.10.

55) 김동욱, op.cit., P. 309.

56) 윤일주교수 논문편찬회 편, ibid., PP. 38-39.

57)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 영향으로 귀족의 주택이나 신사에 ‘高床式’ 건축을 채용해왔다. 그 양식이 근대기에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층집으로 변했다고 본다. (杉本尚次(1987), 住まいエスノロジ, 株式會社住まい圖書館, P. 117.)

58) 함한희(2005), 부엌의 문화사, 살림, P. 25.

그런 ‘혼종문화’⁵⁹⁾는 이질적 문화가 섞인 어느 경우에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으로,⁶⁰⁾ 그로부터 ‘새로운 전통성’과 ‘새로운 자기정체성’이 싹틀 소지가 풍부했다. 염상섭의 경우처럼 일상의 배후에 작용하는 근대자본주의의 위력인 ‘돈’, 비록 타자이긴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그 힘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⁶¹⁾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채만식의 〈탁류〉, 유진오의 〈화상보〉, 정비석의 〈금단의 유역〉, 〈窮心〉 등에 그러한 당대 풍속이 잘 그려져 있다.

4. 결 론

식민지의 혼종문화는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의 이른바 ‘총동원체제’ 시행과 더불어 위축된다. 정책적 목표가 노골화되면서 문화의 순조로운 혼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식민지에 퍼진 일상문화로부터 정체성 형성에서 우리가 어떤 극복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든 지금도 숙제거리로 남아있다.

일본문화라는 특수성만을 문제삼는다면 아마도 근대의 극복이나 청산도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해 사용하던 각종 제도나 기술은 오늘날에도 상당부분이 그대로 시행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차별’ 정도가 낮았던 의, 식, 주를 비롯한 유행, 오락거리 등 일상문화는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녹아있어 한국문화와 일본문화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혼종성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문학작품의 주인공이나 서술자, 작가의 의식을 해부하면서 당시의 문화에 수긍하거나 저항하는 이분법을 적용하면 될 듯 하지만, 문학에 형상화된 근대문화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근대인이 되려는 모색과 식민지인의 으로서의 갈등이 동시에 표현되면서 근대적 모순의 인식과 갈등의 치유에 대한 의지의 표출 역시 동시적이었다.

당대의 작품이 속했던 문화적 상황과 주인공이나 서술자, 작가가 보여준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조명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런 시도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

59) 문화에는 확실한 경계가 없으며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람은 어느 문화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船曳建夫(1989), "ざざなみとしての文化, うねりとしての文明", 未開概念の再検討, 株式會社プロポート, P.97.)

60) 염복규, op.cit., P.88, 주1 참조.

61) 양문규, op.cit., P.335.

참 고 문 헌

1. 채만식 (1989), 채만식문학전집 7, 창작과 비평사.
2. 염상섭 (1982), 염상섭 선집, 어문각.
3. 조갑상 (2002), 소설로 읽는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4. 한국현대문학회 편 (2003), 한국문학과 풍속1, 국학자료원
5. 한국근대문학연구학회 편 (2001), 한국근대문학과 일본문학, 국학자료원.
6. 한국기호학회 엮음 (1995), 문화와 기호, 문학과 지성사.
7. 김정하 (2005), “근대식민도시 부산의 성격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 9집.
8. 한국소설학회 편 (2003), 한국소설 근대성의 시학, 예림기획.
9. 노형석 (2005), 한국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10. 소래섭 (2005), 에로 그로 년센스, 살림.
11. 신명직 (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12. 민족문제연구소 편 (2000),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13. 윤일주교수 논문편찬회 편 (1987), 한국근대건축사연구,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창회.
14. 염복규 (2005),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15. 함한희 (2005), 부역의 문화사, 살림.
16. 김주리 (2005), 모던 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살림.
17. 양문규 (2004), 한국근대소설과 현실인식의 역사, 소명출판.
18. 차혜영 (2004), “식민지근대의 심상지리”, 식민지시대 문학 장의 재발견 학술발표회 자료집.
19. 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 (2004),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1996), 공간의 시학, 민음사.
21. Yi-Fu Tuan, 구동희, 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대운.
22. 사에구사 도시카쓰 편 (2003),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사.
23.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 (2004), 박람회 - 근대의 시선, 논형.
24. 今和次郎 (1971), 考現學, 株式會社ドメス出版
25. 編者代表 南博 (1987), 近代庶民生活誌 (6卷), 株式會社 三一書房.
26. 成山龍一 (1993), 近代日本の軌跡 - 都市と民衆, 吉川弘文館.
27. J.H. 스텔워드, 米山俊直, 石山 子驛 (1979), 文化變化の理論-多系進化の方法論, 弘文堂.
28. 千田禾念 編 (2004), 東アジアの都市形態と文明史(國際シンポジウム第21集),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9. 高崎宗司 (1993), 在朝日本人 清日戰爭(岩波講座 近代日本 植民地3), 岩波書店.
30. 竹國友康 (1999), ある日韓歴史の旅, 朝日選書.
31. 井口和起 (1976), 朝鮮併合(岩波講座 日本歴史 17(近代 4)), 岩波書店.
32. 矢内原忠雄 (1941), 植民及植民政策, 有斐閣
33. 杉本尚次 (1987), 住まいエスノログ, 株式會社住まい圖書館.
34. 山山順造 編 (1989), ‘未開 概念の再検討’, 株式會社プロポート.

35. 今井晴夫 (1939), 朝鮮之觀光, 朝鮮之觀光社.

36. 釜山甲寅會 (1916), 日鮮通交史.

